

# 逆順位와 正順位

유경환

조선일보 논설위원

역순위와 정순위, 이것은 또순이 이야기가 아니다.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意識의 문제이다. 우리들의 意識은 언제부터였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순서로 당연한 듯이 그 순위에 길들여져 왔다. 우리들의 귀에 익은 대로 이런 순서대로 말해왔고, 이런 순위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문제의 정순위로만 여겨왔다.

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異議를 제기한다. 우리들에게 사회화된 이 순위를 역순위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.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이 모두 정치에서 비롯되고 또 귀납되는 것은 아니다.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.

정치보다는 경제를 더 많이 말하고, 경제보다는 사회를 더 많이 화제에 올리고, 사회보다는 문화를 더 논의하는, 이런 일상적인 삶의 대화가 진정코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.

우리들의 관심이 정치현상보다는 경제생활에 모아지고, 경제생활보다는 사회문제에 돌려지고, 나아가서 사회문제보다 문화현실에 집중되게 될 때, 비로소 우리는 문화국민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.

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를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. 좁은 범주 안의 문화현상만이 아니라, 사회 경제 정치가 모두 용해되어 있는 넓은 범주의 문화를 말한다.

광의의 문화가 사회 경제 정치를 수용할 수 있는 실례를,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하게 만나곤 한다. 인류사 그 자체가 곧 文化史인 것이다.

한정된 시대로 구분해 볼 때 아무리 당대 사회를 지배하던 것이 정치였다 하더라도, 이 시대구분의 폭이 넓어지면 정치는 사라지고, 남게 되는 것은 문화 뿐이다.

특정한 시대로 구분해 볼 때 아무리 당대 사회의 하부구조를 이루던 것이 경제였다 하더라도, 시대구분의 폭이 거시적으로 늘어나면 경제는 사라지고, 남는 것은 역시 문화 뿐이다.

사회제도, 사회관습, 사회사조도 마찬가지이다. 미시적인 단위기간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일 수 있으나, 거시적인 큰 자로 켈 때엔 문화 속에 수용되고 만다.

이런 논리에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순위를 역순위로 보고, 문화 사회 경제 정치를 정순위로 봐야 할 것이 아닌가.

우리는 너무 정치만 말한다. 정치에 모든 것을 거는듯 정치에만 과열한다. 정치가 우리들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휩쓸림에 떠밀려 허덕여 왔지만, 그렇다 하여도 평범한 정상인으로서 시민답게 소박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늘 '정치야육인'에게 그늘져 왔다는 것은 깨달을 만한 명제이다.

우리는 한때 경제제일주의라는 구호 밑에서 살았다. 경제제일주의의 깃발이 휘날리는 동안 그 깃발의 그들은 넓어졌고 질어져서 사회개발에 눈을 돌리지 못했기에 사회개발은 처졌다. 그러니 문화성장이야 애오라지 빛을 그리워했었을 뿐이니.

이제 우리가 우리답게 살기 위해선 문화를 더 입에 올리고, 사회를 더 말하고, 경제는 그 뒷전으로, 정치는 맨 나중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.

훌륭한 문화는 틀잡힌 문화의식을 나눠주기 때문에, 좋은 사회, 고루 사는 경제, 틀을 어기지 않는 정치를 품어 보듬을 수 있게 한다. 높은 문화의식만이 사회 경제 정치의 울타리 묶을 하기 때문이다.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제대로 틀을 잡자면, 그래서 그 뉘도 함부로 맘대로 어기지 못하게 하려면, 눈부신 문화의식의 눈을 번득여 지켜야 할 일이다.

초점 2 한글맞춤법의 역사적 변천/李翊燮

4 출판편집자들의 의견/張基永·李徹之·김택춘

8 출판에 들어온 中國大陸風

베스트셀러의 社會史 6 趙世熙의 「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」/金彦鎭

서평 10 「사회역사적 想像力」-이남호

「現代小說史研究」-金仁煥

11 「退溪評伝」-李楠永

「20세기 미술운동총서」-俞弘淸

12 「예술을 위한 변명」-趙要翰

「金煥泰全集」-任軒永

13 「戰爭과 平和의 研究」-河英善

「道敎와 韓國思想」-裴宗鎭

출판화제 14 한국의 自然遺産을 총정리한다

15 활발해지는 출판인의 저술활동

출판時評 16 이동도서의 상업주의화를 경계한다/曹大鉉

해의논단 24 英國의 書評에 대하여

세계의 출판 28 英美추리문학계를 이끄는 作家들·外

지금 독서중 20 韓茂淑의 장편 「만남」-뉴질랜드대사관 洪淳範씨

金容沃의 「새 춘향단」-극단「미추」대표 孫振策씨

21 바자리의 「이탈리아 르네상스美術家伝」-목판화가 金相九씨

칼힐 지브란의 「豫言者」-피어리스 판촉부 金惠貞씨

22 김상일의 「한사상」-전도사 金秀澤씨

에드가 스노우의 「中國의 붉은 별」-高大 洪承直씨

지금 제작중 23 金星출판사의 「韓國近代繪畵全集」

省安堂의 「시스템工學用語사전」

독서斷想 5 인간을 그리워하는 詩人의 초상/朴東奎

책의 세계 17 「트리비아」-소용없는 정보를 모은 책/김호근

얼굴 18 문화공보부 저작권과장/尹熙昌씨

내가 아끼는 책 19 1769년版 「그레고리오 聖歌集」

저작권 코너 27 일본지식산업의 전방과 후방/韓勝憲

독자서평 26 「완전주의자의 꿈」·「아시아를 비핵지대로」

30 신간안내

36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목록

38 어린이책 들춰보기

40 200자 안내/이색출판/무크

42 신간도서목록

46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47 출판계 움직임

48 독서퍼즐/정기구독안내